

2025년 1분기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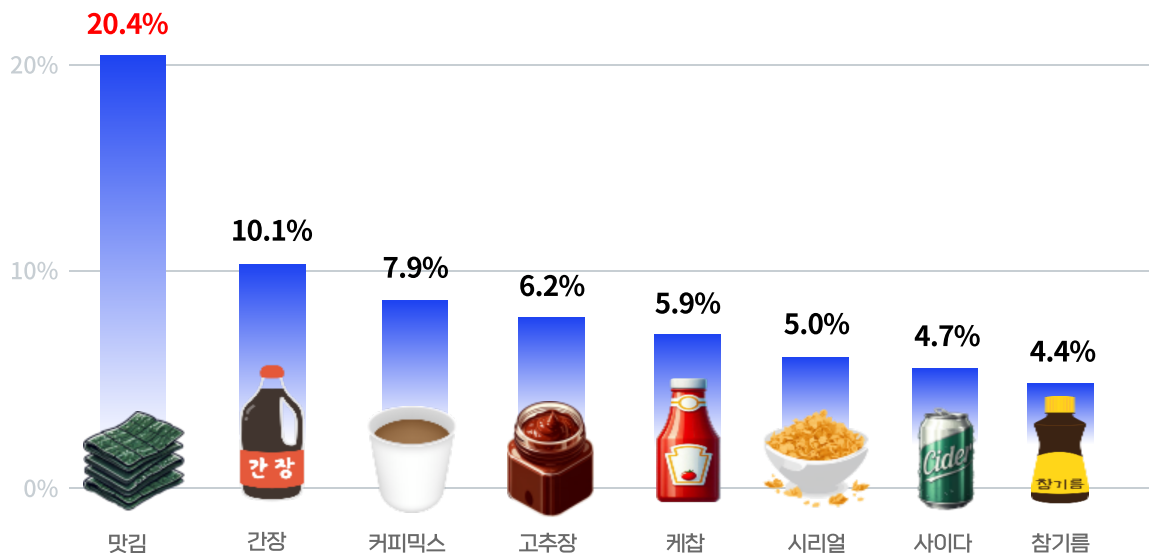


1. 2025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1 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평균 1.1% 상승, 19개 상승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1%

본 협의회가 조사하는 생활필수품 39개 품목 조사품목 39개 중 가격 변동률 확인이 가능한 37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맛김을 포함한 2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가격이 상승한 22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2%였으며, 이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개 품목은 맛김(20.4%), 간장(10.1%), 커피믹스(7.9%), 고추장(6.2%), 케찹(5.9%) 순이었다.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0.1%로 나타났다.

<표 1-1. 전년 동기 대비 가격상승률 상위 8개 품목>



특히, 맛김은 원재료인 김의 생산량 감소 및 해조류 수급 불안정의 영향으로 24년 2분기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더니,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가격이 4,528원에서 5,452원으로 20.4% 상승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5년 3월 기준 물김 산지 가격은 24년 11월 이후 작황 호조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2%나 하락하였으나, 마른김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 가공업체가 늘어난 물김 물량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마른 김 공급 확대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낮아진 물김 가격이 마른 김 가격에 반영될 경우, 추후 김 제품의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간장은 지난 6월 선포식품의 가격 인상으로, 커피믹스는 지난 11월 동서식품 등의 가격 인상으로 꾸준히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였다. 사이다도 24년 1분기 평균 2,852원에서 25년 1분기 2,985원으로 4.7% 상승하였다. 이는 롯데칠성음료가 24년 6월 칠성사이다를 포함한 6개 음료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 것이 소비자에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 조사품목 39개 중 등락을 비교 가능한 37개 품목만을 분석함. 25년 3월 기준 변경된 조사 품목의 경우 25년 1분기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 평균 상승률 11.5%로 높은 상승률 보여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이 큰 상위 10개 제품은 <표 1-2>와 같다.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은 모두 전년도 가격 인상의 영향이 25년 1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10%를 초과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24년 1분기 대비 25년 1분기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

제조사	제품명	상승률
풀무원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	20.9%
동원F&B	양반 좋은 원초에 그득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19.8%
CJ제일제당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12.3%
샘표식품	양조간장 501	12.3%
헨켈홈케어코리아	퍼실파워젤(액체,드럼용)	10.5%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믹스	10.0%
샘표식품	진간장 금F3	7.9%
동서식품	포스트 콘푸라이트	7.8%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7.5%
오뚜기	토마토 케첩	5.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풀무원)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양반 좋은 원초에 그득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동원F&B)이 19.8%,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CJ제일제당) 12.3%, '양조간장 501'(샘표식품) 12.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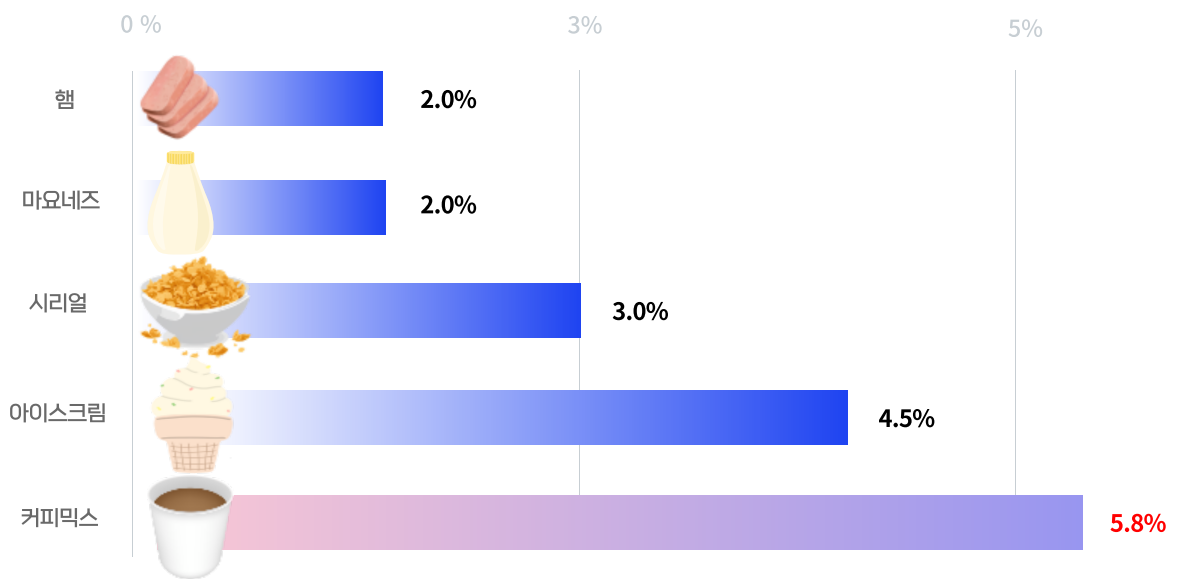
'퍼실파워젤'(헨켈홈케어코리아)은 24년 1분기 23,508원에서 25년 1분기 25,977원으로 10.5% 상승하였다. '맥심 모카골드 믹스'(동서식품)는 24년 1분기 27,959원에서 25년 1분기 30,759원으로 10.0% 상승했다.

한편, 샘표식품의 '양조간장 501', '진간장 금F3'은 24년 4분기에 이어 25년 1분기에도 가격 상승률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은 전년 동 분기 대비 각각 13,420원에서 15,066원으로 12.3% 상승, 7,008원에서 7,564원으로 7.9%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샘표식품은 24년 6월 탈지대두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산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간장의 주 원재료인 대두, 밀가루, 소금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 인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전분기 대비 상승률 1위 커피믹스(5.8%)로 가장 높아

24년 4분기 대비 25년 1분기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²⁾ 19개 품목이 상승 평균 상승률은 1.6%였으며, 18개 품목은 하락했다.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커피믹스(5.8%), 아이스크림(4.5%), 시리얼(3.0%), 마요네즈(2.0%), 햄(2.0%) 순이었다. 반면, 하락률이 가장 높은 제품은 두루마리화장지(-2.7%), 식용유(-2.5%), 두부(-1.8%), 맛살(-1.4%), 기저귀(-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24년 4분기 대비 25년 1분기 상승률 상위 5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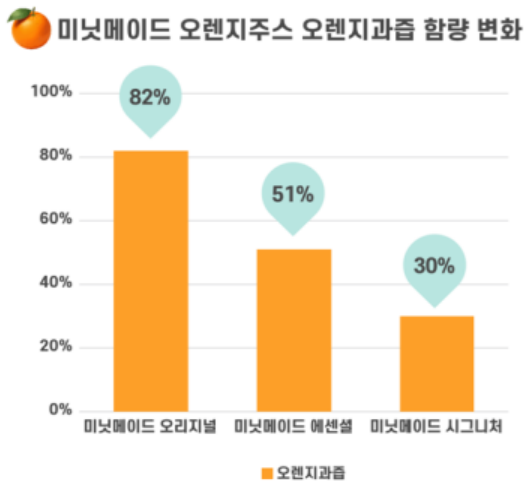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커피믹스는, 국내 믹스커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동서식품이 24년 11월 국제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믹스 등의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한 데 이어, 2위인 남양유업도 '프렌치 카페' 등 주요 스틱커피 제품의 출고가를 9.5% 인상한 것이 25년 1분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가뭄과 폭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커피 생산량 감소한데다 물류 비용 상승까지 더해져 원두 가격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두 가격 상승이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원두 시장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분기 대비 상승률 2위를 기록한 품목은 아이스크림으로, 평균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월드콘과 메로나는 각각 24년 4분기 대비 25년 1분기 평균 1,282원에서 1,350원으로 5.4% 상승, 717원에서 744원으로 3.8%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 빙과 시장은 롯데웰푸드와 빙그레의 양강 체제로 형성되어 있으며, 두 업체 모두 25년 들어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 본 협의회가 조사한 생활필수품 총 39개 품목 중 비교 가능한 품목인 38개 품목만 분석

4 미닛메이드, 오렌지 과즙 82% → 30%까지 낮춘 오렌지 주스, 리뉴얼 제품 주의 필요



미닛메이드 오렌지 제품은 최근 2년간 두 차례에 걸친 리뉴얼로 인해 동일 제품 간의 가격 비교가 어려워졌다.

미닛메이드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품명을 변경하며 리뉴얼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체에 문의 결과, 미닛메이드는 2023년 12월 '미닛메이드 오리지널'을 '미닛메이드 에센셜'로 변경하며 오렌지 과즙 82%를 오렌지 51%로 감소하였다. 이어 2024년 12월에는 '에센셜'을 '미닛메이드 시그니처'로 다시 리뉴얼하며 오렌지 과즙 함량을 30%까지 낮추었다.

해당 리뉴얼은 실질적으로 제품의 주원료 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명확한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사는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한 오렌지 과즙 수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제품명을 변경하고 포장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다. 특히 주 원재료의 함량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리뉴얼된 제품과 기존 제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25년 1분기에도 여전한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 기업의 책임있는 가격 정책 필요

현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생활필수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물가 인상은 특정 품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위적으로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본 협회회의 25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인상된 제품들의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올해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등 생필품 가격 상승세가 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5년 3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기업들이 출고가를 인상한 커피, 시리얼, 햄 등의 품목은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가격을 유지한 채 과즙 함량 등 주요 성분을 조정하며 리뉴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제품 선택에 혼란을 초래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제품 변경 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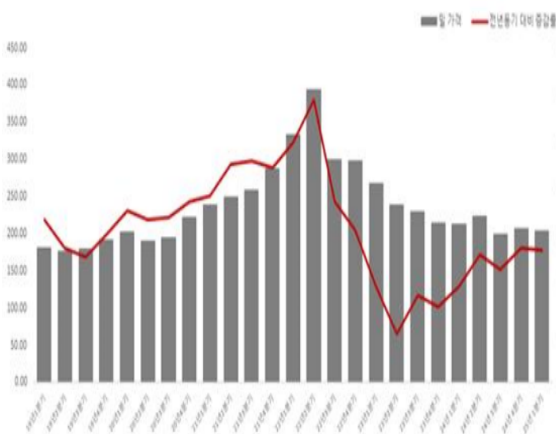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환율, 원재료 상승 등 불가피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기업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본 협회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책임 있는 가격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 2025년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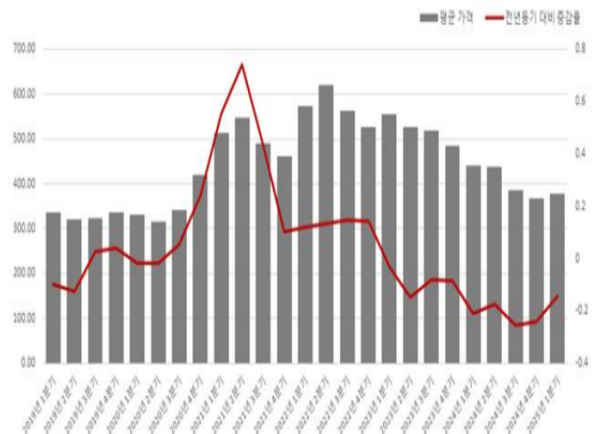
2-1 2025년 1분기 기본 원재료(밀, 대두, 원당) 가격 추이

밀은 22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우리나라 식품 및 외식 물가 인상을 주도한 원재료 중 하나이다. 19년부터 25년 1분기까지 밀의 국제 가격 동향을 보면, 21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2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58.1%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그러나 22년 3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며 24년 3분기에는 평균 199.59 달러/톤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년 1분기 평균 201.62 달러/톤 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이후 소폭 상승세가 있었으나 25년 1분기 현재는 20년 연평균 가격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향후 국제 밀 가격에 대해 공급망 안정성으로 가격이 보합 혹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 밀 가격의 하락세는 원재료가 급등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밀가루 및 이를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가격 인하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림2-1. 2019년~2025년 분기별 국제 밀 가격>



<그림2-2. 2019년~2025년 분기별 국제 대두 가격>



(KREI 해외곡물시장 데이터)

대두의 국제 가격은 20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여 22년에 2분기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후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25년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두의 가격은 밀 가격에 비해 하락 수준이 낮아 25년 1분기 평균 가격은 376.41달러/톤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2025년 4월호 국제곡물편」에 따르면 브라질과 우크라이나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향후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세계 대두 소비량에 대한 전망은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올해 대두 가격은 안정 혹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두유 가격 추이에 대해 월드뱅크 원자재 데이터를 보면 올들어 다시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25년 1분기 평균 가격을 전분기와 비교해 볼 때 보합세로 보인다. 팜유 가격 역시 25년 3월에 전월 대비 소폭의 가격 상승이 보이나 전분기 대비 25년 1분기의 평균 가격은 보합세로 나타났다.

원당은 국제 곡물류 중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5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보합세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생산 측면의 문제가 브라질의 작황 호조와 인도의 수출 제한 완화 조짐 등에 의해 공급이 안정화되고 국제적으로 설탕 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국내 설탕 가격 안정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곡물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보이나 최근 이상 기후와 국제 분쟁과 더불어 환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장바구니 물가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원두 가격 분석

올 1분기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가히 전방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외식업계 가격 인상도 잦았는데, 그중 커피 업계의 가격 인상이 1월부터 연쇄적으로 단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저가, 고가 커피 프랜차이즈들과 컵커피 제조업체들 다수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는데, 인상 내용은 <표 2-1>과 같다. 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인은 국제 원두의 시세가 두 배까지 오르고, 환율 폭등까지 이루어져 원가 압박이 심하다는 것이 주 골자이다.

<표 2-1. 커피 프랜차이즈 및 제조업체 가격 인상 내용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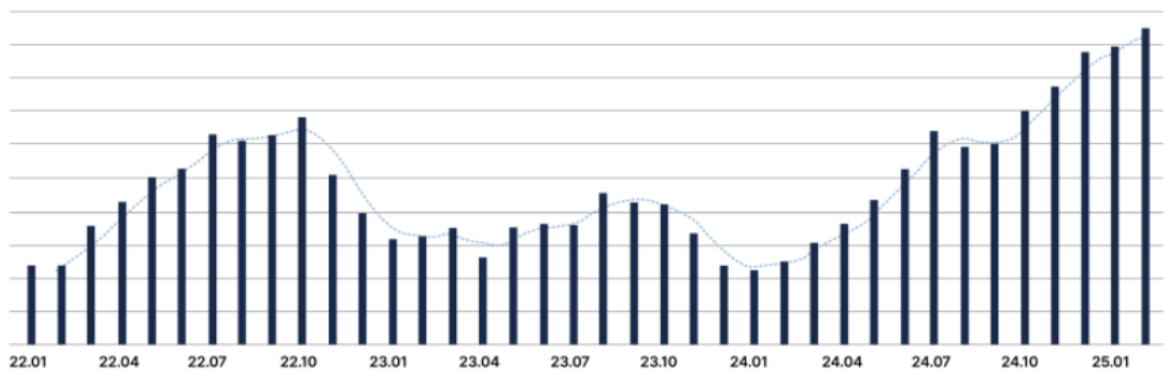
인상시기	인상 업체	인상 내용	제품
1월	스타벅스	주요 가격 100~300원 인상	22종
	네스프레소	11.8% 인상	캡슐 37종
	폴바셋	3.4% 인상	28종
2월	SPC 던킨	평균 6% 인상	일부 제품
	SPC 파스쿠찌	200~600원 인상	아메리카노 등 5종
	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일부 제품
3월	배스킨라빈스	200~400원 인상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벤티
	투썸플레이스	4.9% (200원씩) 인상	커피, 음료 등
	매일유업	3.6% 인상	바리스타룰스
4월	블루보틀	300~900원 인상	아메리카노, 라떼 등

3) 3월 언론 발표 기준

그러나 커피 원두의 가공 전 단계인 생두(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의 가격 추이를 보았을 때,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업체들이 주장하는 2배 정도의 가격 상승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⁴⁾, 생두 가격은 1kg당 22년 평균 6,395원, 23년 평균 5,740원, 24년 평균 6,615원, 25년(1~2월) 평균 8,58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도에 생두 가격이 상승하였다가 23년도 1~2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으며 24년 1분기까지 등락을 반복하다 2분기부터는 상승세를 보였다. 22년 대비 23년 생두의 평균 가격은 -10.2%로 하락하였고, 24년 대비 25년(1~2월) 평균 가격 상승률은 29.7%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주장한 2배 이상의 생두 가격 상승은 22년도부터 24년도 중 가격이 가장 저점이었던 구간과 비교한 주장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2-2. 생두(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가격 추이>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최근 들어, 생두 가격이 상승하고 고환율이 지속되며, 커피 제조 및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바는 알겠으나, 정확한 가격 인상 사유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한 바이다.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 대신에, 기업은 가격 인상에 대한 정보(인상 내용, 인상 제품, 인상 요인)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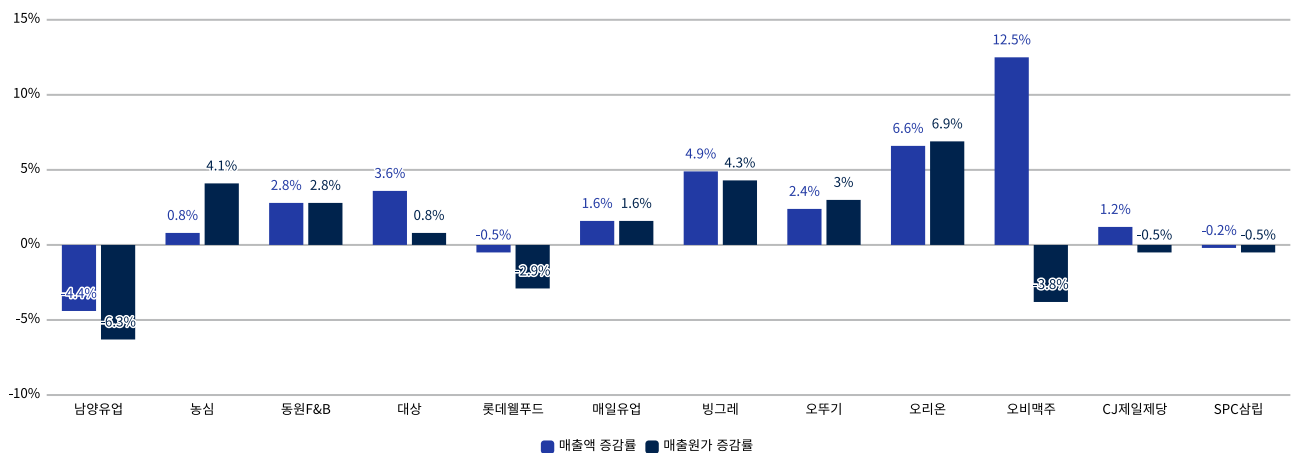
4)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3. 소비자물가 이슈_식품업계 연쇄적 가격 인상 타당성 분석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하였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가 3.6% 상승하여 밥상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심화하였다. 이는 식품업계가 혼란한 국내외 상황을 틈타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상과 파리바게트를 시작으로 롯데웰푸드, SPC삼립, 동원F&B, CJ제일제당, 오비맥주 등 총 20여 개의 가공식품 및 외식업체가 가격을 인상하였다. 이들 업체는 공통적으로 환율 및 원재료비 상승, 제반비용 부담 등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었으나, 본 협회회의 분석 결과, 이러한 주장만으로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표 3-1. 주요 식품업체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매출원가 증감률 >



출처 : dart, 각 사 사업보고서

가격을 인상한 주요 식품업체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원가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동원F&B(2.8%, 2.8%), 대상(3.6%, 0.8%), 매일유업(1.6%, 1.6%), 빙그레(4.9%, 4.3%), 오비맥주(12.5%, -3.8%), CJ제일제당(1.2%, -0.5%) 등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원가 증감률이 매출액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실제로는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분석 결과이다.

<표 3-2. 주요 식품업체 23년 대비 24년 영업이익 증감률 >

(단위 : 백만 원)

업체명	2023년 영업이익	2024년 영업이익	23년 대비 24년영업이익 증감률
남양유업	-71,505	-9,807	86.3%
동원f&b	166,714	183,452	10.0%
대상	123,717	176,941	43.0%
빙그레	112,245	131,276	17.0%
오리온	492,391	543,588	10.4%
CJ제일제당	1,292	1,553	20.2%
SPC삼립	91,734	94,969	3.5%

출처 : dart, 각 사 사업보고서

또한, 식품업체들의 23년 대비 24년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양유업(86.3%), 동원 F&B(10.0%), 대상(43.0%), 빙그레(17.0%), 오리온(10.4%), CJ제일제당(20.2%), SPC삼립(3.5%) 등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실적 개선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24년에 제품가격 인상을 단행한 CJ제일제당, 동원F&B 등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도 보여졌다.

<표 3-3. 주요 식품업체 22년 대비 24년 영업이익 증감률 >

(단위 : 백만 원)

업체명	2022년 영업이익	2023년 영업이익	2024년 영업이익	22년 대비 24년 영업이익 증감률
농심	112,173	212,065	163,074	45.4%
롯데웰푸드	112,385	117,018	157,101	39.8%
오뚜기	185,656	254,894	222,015	16.9%
매일유업	60,688	72,229	70,336	15.9%

출처 : dart, 각 사 사업보고서

한편, 농심, 롯데웰푸드, 오뚜기, 매일유업의 경우는 23년 영업이익이 22년 대비 급등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24년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2년 대비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을 보였다. 물론, 현재 코코아, 생두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밀가루, 식용유,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⁵⁾에 대해 할당 관세 적용 및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 원료 구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식품업계 또한 원재료 가격변동과 정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품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과 물가안정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5) ①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대두 등 1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② 커피 및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



(기준 : 2025.03.31.)

연번	인상 시기	업체명	인상 제품	평균 인상률, 인상액
1	25.01.	대상	마요네즈, 후추 등 소스류 제품	19.1%
2	25.02.	파리바게트	빵 96종, 케이크 25종 등	5.9%
3	25.02.	롯데웰푸드	과자·아이스크림 26종	9.5%
4	25.02.	SPC 삼립	크림빵 등 빵 제품 50여 종	최대 20%
5	25.02.	던킨	일부 제품	6%
6	25.03.	뚜레쥬르	빵·케이크 110여 종	5%
7	25.03.	동원F&B	냉동만두 15종	5%
8	25.03.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20여 개 제품	9.8%
9	25.03.	롯데아사히주류	아사히 맥주	8 ~ 20%
			아사히 슈퍼드라이 캔(350ml)	14.3%
			아사히 슈퍼드라이 캔(500ml)	8.9%
10	25.03.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37종	11.8%
11	25.03.	빙그레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	200원
			해태아이스-부라보콘	300원
			해태아이스-플라포	400원
12	25.03.	웅진식품	하늘보리(500ml) 등 차음료	10%
			자연은 시리즈 및 초록매실(500ml)	9.3%
13	25.03.	스미후루코리아	편의점 반값바나나	8.7%
14	25.03.	농심	라면·과자 17개	7.2%
15	25.04.	오뚜기	(대형마트) 진라면 등 16개 품목	7.5%
			(편의점) 3분 카레 및 짜장 제품	13.6%
16	25.04.	오비맥주	카스, 한맥 등 국산 맥주 출고가	2.9%
17	25.04.	남양유업	초코에몽(190ml)	14.3%
			과수원 사과(200ml)	12.5%
			아몬드데이(오리지널, 언스위트 190ml)	13.3%
18	25.04.	매일유업	치즈, 두유, 등 51개 제품	8.9%
			두유·아이스크림 등	5.3 ~10%
			바리스타를스	3.6%
			허쉬드링크 초콜릿	11.8%
19	25.04.	하겐다즈	파인트	12.6%
			미니컵·스틱바·샌드	16.9%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품목별 가격 변동 현황

품목	용량	품목별 평균 가격		
		2024년 1분기 (원)	2025년 1분기 (원)	등락률
과자(파이)	468g 환산	4,526	4,519	-0.1%
과자(스낵)	90g	1,249	1,252	0.2%
껌	원통 90g 환산	4,486	4,483	-0.1%
밀가루	1kg 환산	2,106	2,033	-3.4%
설탕	1kg 환산	2,811	2,837	0.9%
고추장	1kg	15,091	16,029	6.2%
된장	1kg	8,257	8,231	-0.3%
쌈장	170g 환산	1,626	1,656	1.8%
식용유	1.8L 환산	8,671	8,179	-5.7%
참기름	320ml	9,540	9,962	4.4%
간장	1.7L 환산	13,637	15,009	10.1%
케찹	500g	3,264	3,455	5.9%
마요네즈	500g	5,878	6,061	3.1%
맛김	5g*9봉 환산	4,528	5,452	20.4%
라면	봉지 120g	766	768	0.3%
햄	340g	6,062	6,217	2.6%
즉석밥	210g 환산	1,602	1,582	-1.2%
생수	2L	1,039	1,032	-0.6%
콜라	1.5L 환산	2,971	3,064	3.1%
사이다	1.5L 환산	2,852	2,985	4.7%
소주	360ml	1,492	1,483	-0.6%
맥주	캔 355ml	1,733	1,752	1.1%
커피믹스	180개입 환산	27,151	29,283	7.9%
분유	800g	23,970	24,554	2.4%
시리얼	600g	5,918	6,216	5.0%
어묵	300g	2,738	2,719	-0.7%
맛살	300g	2,864	2,837	-0.9%
달걀	1판(30개)	7,470	7,568	1.3%
두부	300g 환산	3,677	3,622	-1.5%
우유	1L	3,327	3,360	1.0%
아이스크림	160ml	1,360	1,419	4.4%
냉동만두	1,000g	9,781	10,028	2.5%
두루마리화장지	24롤	25,339	24,456	-3.5%
기저귀	40개입	29,585	28,970	-2.1%
생리대	18개입	6,398	6,548	2.3%
세탁세제	3kg	9,586	9,472	-1.2%
참치 캔	100g 환산	2,314	2,305	-0.4%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제품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제품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 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제품별 가격 변동 현황

품목	제조사	제품명	용량	2024년 1분기(원)	2025년 1분기(원)	동락률
과자 (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468g(12개입)	4,526	4,519	-0.1%
	롯데제과	몽쉘 카카오 생크림 케이크	408g(12개입)	5,321	5,456	2.5%
과자 (스낵)	농심	새우깡	봉지 90g	1,249	1,252	0.2%
	오리온	포카칩 오리지날	봉지 66g	1,492	1,530	2.6%
껌	롯데제과	자일리톨 오리지날(껌)	원통90g	4,486	4,483	-0.1%
밀가루	CJ제일제당	백설 밀가루 중력분(다목적용)	1kg	2,141	2,053	-4.1%
	대한제분	곰표 밀가루 중력분(다목적용)	1kg	2,071	2,014	-2.8%
설탕	CJ제일제당	백설 하얀설탕	1kg	2,811	2,837	0.9%
	CJ제일제당	백설자일로스하얀설탕	1kg	2,811	5,124	0.9%
고추장	CJ제일제당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사각 1kg	13,666	15,351	12.3%
	대상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사각 1kg	16,515	16,706	1.2%
된장	CJ제일제당	해찬들 맛있는 재래식 된장	사각 1kg	8,319	8,282	-0.5%
	대상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사각 1kg	8,195	8,180	-0.2%
쌈장	CJ제일제당	해찬들 사계절 쌈장	170g	1,657	1,747	5.4%
	대상	청정원 순창 양념듬뿍 쌈장	200g	1,878	1,842	-1.9%
식용유	CJ제일제당	백설 콩100%로 국내에서 만든 콩기름	1.8L	8,026	7,672	-4.4%
	사조해표	식용유 콩기름	1.8L	8,480	7,856	-7.4%
	오뚜기	콩100% 식용유	1.8L	9,506	9,010	-5.2%
참기름	CJ제일제당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	320ml	8,153	8,181	0.3%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320ml	10,926	11,744	7.5%
간장	샘표식품	양조간장 501	1.7L	13,420	15,066	12.3%
	샘표식품	진간장 금F3	860ml	7,008	7,564	7.9%
케찹	오뚜기	토마토 케찹	500g	3,264	3,455	5.9%
마요네즈	오뚜기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	500g	3,264	6,061	3.1%
맛김	동원F&B	양반 좋은 원초에 그득하고 향긋한 들기름 김&올리브김	5g*9봉	4,336	5,195	19.8%
	풀무원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	5g*9봉	4,720	5,709	20.9%
라면	농심	신라면	5개 묶음	4,092	4,153	1.5%
	삼양식품	삼양라면	5개 묶음	3,933	3,905	-0.7%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5개 묶음	3,472	3,468	-0.1%
햄	CJ제일제당	스팸 클래식	340g	6,062	6,217	2.6%
	롯데푸드	롯데 신선톡톡 슬라이스햄	100g	3,542	3,482	-1.7%
즉석밥	CJ제일제당	햇반	210g 환산	1,747	1,761	0.8%
	오뚜기	오뚜기밥 흰밥	210g 환산	1,457	1,403	-3.7%



품목	제조회사	제품명	용량	2024년 1분기(원)	2025년 1분기(원)	등락률
생수	광동제약	제주 삼다수	2L	1,238	1,234	-0.4%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8.0	2L	840	831	-1.0%
오렌지 주스	코카콜라	미닛메이드 에센셜(오리지널) 오렌지	1.5L	4,035	-	-
	코카콜라	미닛메이드 시그니처 오렌지	1.5L	-	-	-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오렌지	1.5L	-	4,314	-
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페트1.5L 환산	3,414	3,516	3.0%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	페트1.5L 환산	2,528	2,612	3.4%
사이다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	페트1.5L 환산	2,852	2,985	4.7%
소주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360ml	1,501	1,484	-1.1%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360ml	1,484	1,482	-0.1%
맥주	오비맥주	Cass 후레쉬	캔355ml	1,741	1,747	0.3%
	하이트진로	Hite	캔355ml	1,725	1,757	1.8%
커피믹스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믹스	180개입	27,959	30,759	10.0%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80개입	26,343	27,806	5.6%
분유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3단계	캔800g	23,970	24,554	2.4%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XO 3단계	캔800g	33,497	34,336	2.5%
시리얼	농심	스페셜K	480g	8,942	8,417	-5.9%
	농심	콩푸로스트	600g	6,017	6,155	2.3%
	동서식품	포스트 콘푸라이트	600g	5,820	6,276	7.8%
어묵	CJ씨푸드	삼호 부산어묵 골드	300g	2,762	2,797	1.3%
	사조대림	대림선어묵 부산어묵 마당놀이	300g	2,714	2,642	-2.7%
맛살	사조대림	게맛살 큰잔치	300g	2,864	2,837	-0.9%
달걀	-	대란 1판	1판(30개)	7,470	7,568	1.3%
두부	풀무원	특등급 국산콩 두부(부침용)	300g	4,155	3,993	-3.9%
	CJ제일제당	행복한콩 국산콩 100% 두부(부침용)	300g	3,199	3,250	1.6%
	CJ제일제당	행복한콩 단단한 부침용 두부	300g	1,506	1,464	-2.7%
우유	서울우유	서울우유	종이팩 1L	3,143	3,148	0.1%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	종이팩 1L 환산	3,418	3,462	1.3%
	매일유업	매일우유 오리지널	종이팩 1L 환산	3,420	3,469	1.4%
아이스크림	빙그레	투게더 바닐라맛	900ml	6,803	6,824	0.3%
	롯데제과	월드콘	160ml	1,285	1,350	5.1%
	빙그레	메로나	80ml 환산	718	744	3.7%

6) 미닛메이드 시그니처 오렌지는 2025년 3월 제품 변경으로 2025년 1분기 평균 가격 고시하지 않음.



품목	제조회사	제품명	용량	2024년 1분기(원)	2025년 1분기(원)	등락률
냉동만두	CJ제일제당	비비고왕교자	1,000g	10,058	10,287	2.0%
	해태제과	얇은피 고향만두	1,000g	9,696	10,112	3.9%
	동원F&B	개성왕만두	1,000g	9,588	9,684	4.8%
두루마리 화장지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데코&소프트 3겹	35m*24롤	28,640	27,642	-4.3%
	깨끗한 나라	깨끗한나라 화장지 순수프리미엄 3겹	35m*24롤	22,038	21,269	-3.8%
기저귀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컴포트 기저귀 4단계, 여아용/남아용	40개입	29,585	28,970	0.3%
생리대	유한킴벌리	화이트 슈퍼흡수 중형	18개입	6,752	7,055	8.4%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오리지널 울트라슬림(날개 중형)	18개입	6,856	7,003	6.3%
	LG유니참	소피 바디피트 볼록 맞춤 울트라 중형	18개입	5,587	5,587	1.2%
세탁세제	애경산업	스파크 리필	3kg만	7,477	7,473	0.9%
	CJ라이온	비트 리필	3kg만	9,446	9,489	1.5%
	LG생활건강	테크 리필(테크 4대 얼룩 강력제거 진드기 사체 배설물 99.9% 제거)	3kg만	11,834	11,454	0.1%
	헨켈홈케어코리아	퍼실파워젤(액체,드럼/일반 겸용)	2.7L	23,508	25,977	12.1%
샴푸	아모레퍼시픽	려 함빛 (극손상&영양샴푸)	550ML 환산	-	14,594	-
	LG생활건강	케라시스 러블리 데이지 퍼퓸 샴푸	600ML	8,105	7,170	-10.3%
	애경산업	엘라스틴 콜라겐 볼륨 탄력케어 10X 샴푸	680ML	2,441	8,561	-
참치	동원F&B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100g	2,441	2,449	4.1%
	동원F&B	사조 참치 살코기 안심따개	100g	2,188	2,161	-3.1%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제품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품목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2024년 4분기 대비 2025년 1분기 생활필수품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

품목	용량	품목별 평균 가격		
		2024년 4분기(원)	2025년 1분기(원)	등락률
과자(파이)	468g 환산	4,533	4,519	-0.3%
과자(스낵)	90g	1,236	1,252	1.3%
껌	원통 90g 환산	4,478	4,483	0.1%
밀가루	1kg 환산	2,045	2,033	-0.6%
설탕	1kg 환산	2,818	2,837	0.7%
고추장	1kg	15,837	16,029	1.2%
된장	1kg	8,305	8,231	-0.9%
쌈장	170g 환산	1,627	1,656	1.8%
식용유	1.8L 환산	8,386	8,179	-2.5%
참기름	320ml	10,040	9,962	-0.8%
간장	1.7L 환산	14,983	15,009	0.2%
케찹	500g	3,429	3,455	0.8%
마요네즈	500g	5,943	6,061	2.0%
맛김	5g*9봉 환산	5,472	5,452	-0.4%
라면	봉지 120g	760	768	1.1%
햄	340g	6,097	6,217	2.0%
즉석밥	210g 환산	1,571	1,582	0.7%
생수	2L	1,038	1,032	-0.6%
콜라	1.5L 환산	3,034	3,064	1.0%
사이다	1.5L 환산	2,991	2,985	-0.2%
소주	360ml	1,483	1,483	0.0%
맥주	캔355ml	1,747	1,752	0.3%
커피믹스	180개입 환산	27,683	29,283	5.8%
분유	800g	24,366	24,554	0.8%
씨리얼	600g	6,032	6,216	3.0%
어묵	300g	2,733	2,719	-0.5%
맛살	300g	2,878	2,837	-1.4%
달걀	1판(30개)	7,469	7,568	1.3%
두부	300g 환산	3,688	3,622	-1.8%
우유	1L	3,362	3,360	-0.1%
아이스크림	160ml	1,358	1,419	4.5%
냉동만두	1,000g	10,088	10,028	-0.6%
두루마리화장지	24롤	25,129	24,456	-2.7%
기저귀	40개입	29,296	28,970	-1.1%
생리대	18개입	6,615	6,548	-1.0%
세탁세제	3kg만	9,513	9,472	-0.4%
샴푸	500ml	8,555	8,513	-0.5%
참치 캔	100g 환산	2,261	2,305	1.9%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제품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제품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 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2024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구분	24년 1분기				25년 1분기				증감률
	1월	2월	3월	평균	1월	2월	3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113.17	113.78	113.95	113.63	115.71	116.08	116.29	116.03	2.1%

출처: 통계청